

15

남부평야지 소득작물 후작용 단기성 벼 ‘단평’

연구자 : 논이용작물과 조준현 055-350-1169

• 연구 배경

- 남부평야지 이모작 작부체계에 적응하는 단기성 품종 개발이 필요
- 이모작 및 하우스 소득작물 후작용으로 수량과 병 저항성 등이 개량된 품종 개발 필요

• 주요 연구성과

- 식미가 양호하며 소득작물 후작지에 적응이 높은 품종임
 - 단간 수중형 : 간장 63cm, 수장 19cm, 수수 13개/주, 수당립수 71개, 천립중 22.7g
- 만기재배(7월 10일 이양) 출수기는 8월 26일로 ‘금오벼’보다 1일 빠름
 - 수량 : 505kg/10a, 금오벼(468kg/10a) 대비 8% 증수
- 잎도열병, 목도열병 및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한 저항성을 가짐
- ‘단평’을 이용한 남부지방 2모작 작부체계 적응 모식도
 - 2모작 : 양파 · 마늘 수확 후 벼 이양(6월 중순) → 벼 수확(9월 하순)



단평 성숙전경

단평 호평
도열병 저항성

단평 백미 특성

• 파급효과

- 논을 이용한 다양한 작부체계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
 - 남부평야 소득작물 후작용 고품질 내병성 품종 보급으로 소득 증대